



무치악 환자에서 즉시 기능이 가능한 implant-retained overdenture protocol

김장욱*, 권공록, 최대균, 김형섭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상악에 complete denture와 하악에 distal extension removable partial denture로 수복된 환자의 경우 소위 combination syndrome이라고 불리는 destructive change를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Shen & Gonloff의 연구에 의하면 하악 양쪽 구치부가 소실된 환자의 24%, 그리고 상하악 모두 complete denture로 수복된 환자보다 5배 많은 유병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ombination syndrome에 의한 구강 내 증상은 하악전치의 고유감각으로 인한 과기능으로 하악전치가 과정출되며 그로인해 상악 전치부의 골흡수를 야기 시킨다. 또한 하악구치부의 골소실로 인해 상악결절이 과성장되며 경구개의 유두상 과증식을 보인다. 이러한 5가지의 주증상 외에도 부가적으로 하악 구치부의 지지소실로 인한 VD감소 및 교합평면의 부조화, 치육열성비대, 하악전치부의 치주 변화, 하악의 전방이동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보철물이 잘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하악 구치부의 지지상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악

complete denture와 하악 removable partial denture로 수복시 stress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support를 얻어야 하며 적절한 vertical and centric relation position이 수반된 occlusal scheme을 고려해야 한다.

본 증례는 상악 complete denture와 하악 6전치만 남아있는 RPD를 착용한 환자로 하악 구치부지지 소실 및 하악 6전치의 과기능으로 인한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보철물을 통해 소실된 VD를 회복 시킨 뒤 상하악 전치부의 접촉을 제거하였으며 적절한 occlusal scheme을 얻기위해 Broadrick occlusal plane analyzer, Meyer가 제시한 Cusp and sulci analysis 및 FGP technique을 이용하여 적절한 교합관계를 지닌 상악 complete denture 및 하악 removable partial denture로 수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 안정된 구치부 교합을 확립하므로써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증례보고를 하는 바이다.